

코리아스픽스는 Google Apps를 통해 상당한 비용절감과 운영효율개선을 쉽게 이루었습니다.

KoreaSPEAKs

정리

코리아스픽스가 원했던 것

-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협업 솔루션
- 운영효율성 개선을 위한 비용효율적이며 맞춤형인 솔루션
- 비용효율적인 서버 도메인 웹 관리

코리아스픽스가 이용한 것

- Google Drive
- Google Sites
- Google Analytics
- Google Forms

코리아스픽스가 이룬 것

- 비용효율적이고 맞춤형인 단체 토의 솔루션
- Google Sites를 통해 각각의 웹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웹페이지 개발에 소요되는 미화 1,000 불 이상의 비용 절감
- 토의 결과의 실시간 갱신

조직

코리아스픽스는 2011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시민들이 공공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코리아스픽스는 30명의 직원이 있으며 대부분이 국내의 다양한 지역에서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전

코리아스픽스의 직원들 대부분은 원격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코리아스픽스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코리아스픽스는 자주 프로젝트 토의를 조직합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토의를 도울 수 있는 적당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2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각각의 토의 세션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제약으로 인해 코리아스픽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 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각 프로젝트 토의에 다수의 참석자가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는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용이했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정보공유를 위해 다양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 비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코리아스픽스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효율적인 서류 공유가 가능한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솔루션

코리아스픽스는 2011년에 Google Apps를 소개받았고 무료시험버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시험사용후에, 한국의 Google Apps 리셀러인 SBC Tech의 도움을 받아 2012년 유료버전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결과

“웹페이지 하나를 만드는데 미화 1,000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Google Sites를 통해서 번거로움도 없고 추가적인 비용없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메인과 웹페이지를 만들고 갱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리아스픽스와 같은 비영리조직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코리아스픽스 이병덕 상임이사가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코리아스픽스는 각각의 토의패널이 투표 결과와 토의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 혹은 메시지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많은 수의 참석자로 인해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Google Analytics가 번거로움없이 그 결과들을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라고 이병덕 상임이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코리아스픽스가 대용량의 정보를 집계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특별히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Google Forms의 사용으로 최소 미화 백만불의 비용절감을 예상합니다. 코리아스픽스는 또한 업무관련서류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고, 코리아스픽스의 창립 이래로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과의 서류공유를 도와주는 Google Drive를 매우 가치있게 생각합니다.

구글 앱스란?

구글 앱스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기기에 관계없이 부서/팀의 협업을 도모하며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구글 앱스에는 Gmail, 캘린더 (일정 공유), 드라이브 (온라인 문서 공유 스토리지), 문서 도구 (문서 작성 및 공동 작업)가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google.co.kr/apps 를 방문하세요.

“Google Apps는 공공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줌으로써 우리의 토의를 더 비용 효율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코라이스픽스의 사명에 높은 기여를 해준 Google Apps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병덕 상임이사는 결론지었습니다.

